

소 교리문답 제8문

1. 오늘의 공부

제 8 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2. 꼭 읽어야 할 성구

(계4: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 제8문과 답을 자녀(학생)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경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계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것을 ‘**섭리**’ 라고 말합니다.

오늘 문답 내용에 섭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께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교리문답서에는 이처럼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용어들과 그 뜻을 잘 이해하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아갈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섭리라는 말을 다시 설명할게요. 섭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다스려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일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기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쁜 일만 있게 하고 힘든 일도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7문** 공부할 때 말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모르고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왜 힘든 일이 있게 합니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요셉이란 사람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형들이 아버지 몰래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버렸어요. 애굽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장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죠. 처음에는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보디발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 왕에게 죄를 짓고 옥에 갇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요. 하루는 이 두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는 꿈이라고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애굽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왕을 만난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꿈의 내용은 애굽에 칠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다시 칠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쌓아 두어야 한다고 조언을 해줘서 애굽이 흉년을 잘 넘기게 되죠. 그 일로 요셉이 애굽 왕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부모님과 형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 버렸으니까 우리 같으면 형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주지 않고 형들을 옥에 가둬서 복수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무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고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1) 정리를 위한 질문

①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섭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다스려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②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요셉은 자기를 팔아 버린 형들에게 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형들이 잘못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일 곧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깨닫고 이해 한 대로 말해 볼까요?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9문 :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6. 기타 과제 창1:1 , 히11:3 (성경도 미리 읽어 오세요)